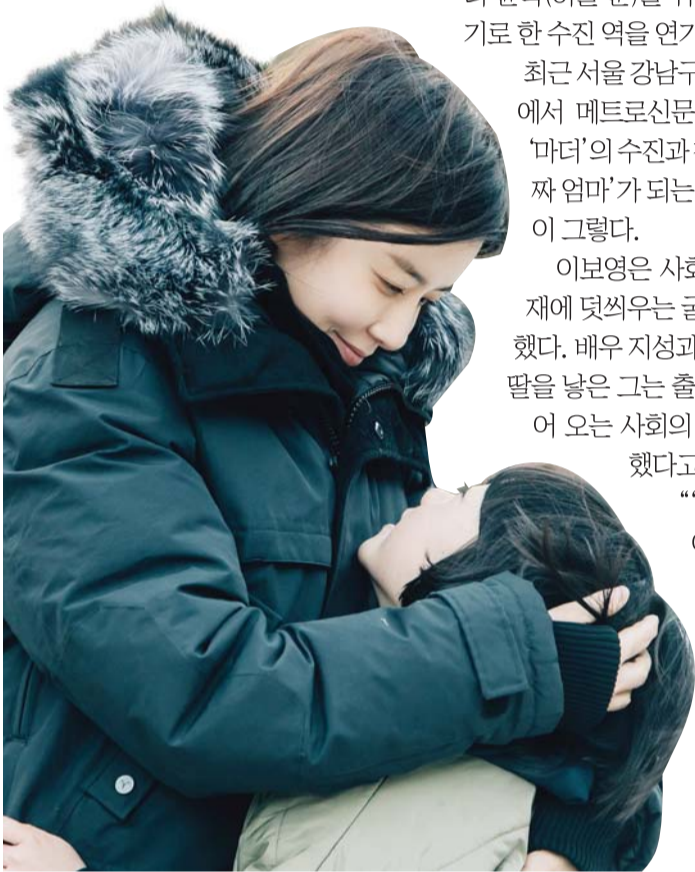


‘진짜 엄마’ 이보영이 세상의 엄마들에 전하는 이야기

★스타인터뷰 드라마 ‘마더’ 이보영

아동학대 사건 보고 출연 결심
버림받은 소녀위한 ‘진짜엄마’ 역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은 편견
엄마-아이 관계는 ‘사람대 사람’
제1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공식 경쟁 부문에 ‘마더’ 선정



엄마가 되어 돌아온 배우 이보영. 그가 드라마 ‘마더’의 인터뷰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 아쉬움과 고마움이 묻어낸 눈물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통곡했어요. 원영이 사건 때는 거의 기절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마더’를 통해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보영은 지난 15일 호평 끝에 막을 내린 tvN 수목드라마 ‘마더’(극본 정서경/연출 김철규)에서 엄마에게 버림받은 소녀 윤복(허율 분)을 위해 진짜 엄마가 되기로 한 수진 역을 연기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메트로신문과 만난 이보영은 ‘마더’의 수진과 참담아있었다. ‘진짜 엄마’가 되는 긴 여정을 거친 점이 그렇다.

이보영은 사회가 ‘엄마’라는 존재에 덧씌우는 굴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우 지성과 결혼한 뒤 2015년 딸을 낳은 그는 출산 후 자신을 옥죄어 오는 사회의 시선에 때로 울컥했다고 밝혔다.

“왜 나한테만 모성애를 강요하지?”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면 ‘대단하다’고 치켜세워주지만, 제가 안고 있을 땐 당연한 일이 되더라고요. 엄



tvN 드라마 ‘마더’의 한 장면. 배우 이보영(오른쪽)과 허율.



/tvN

마가 되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아야만 하는 건데, 사회는 ‘모성애’에 대해 너무나 감압적이예요.”

이보영은 처음 딸 아이를 낳았을 때 ‘예쁘지 않았다’고 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내 아이를 낳으면 눈에서 하트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던 그는 “아이와 관계가 쌓이면서 점점 예뻐졌다”고 말했다.

이보영은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란 사회의 편견을 한꺼풀 벗겨내고자 했다. 모성애가 없음에 스스로를 책망하고, 죄책감을 갖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자 했다.

이보영 역시 그런 아픔을 지나왔다. 모유수유를 끊을 땐 아이에게 죄책감마저 느껴졌다고. 이보영은 이 모든 순간을 지나온 뒤, 진짜 엄마가 됐다. 지금은 아이가 너무 예뻐 참을 수 없을 정도라고. 그만의 ‘모성애’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사람 대 사람’이길 바라요. 아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아이도 나에게 ‘엄마’라는 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

편과 자주 얘기해요. 아이를 떠먹여 주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존재로 키우고요.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더’는 ‘진짜 엄마’ 이보영이 세상의 수많은 엄마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이자, 하나뿐인 딸 아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발판과도 같다.

제작발표회 때도 눈물을 보였던 그는 “아이를 낳은 뒤 유난히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소식이 많았다. 그때 매일 울었다. 활자화로 본 사건들이 머리 속에 영상으로 떠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때 ‘마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씩 하겠다고 했는데 만감이 교차했다. 제작발표회 때 그 마음 때문에 슬프고 겁도 났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잘못 건드릴까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무서웠다”며 “그럼에도 ‘해야한다’는 생각이었다.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무겁고 아픈 소재를 다룬 작품인 만큼 ‘마더’를 보기 어려워하는 시청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려 섞인 시선은 회를 거듭

할수록 사라졌고, 이는 곧 호평으로 뒤바뀌었다.

이보영은 “초반엔 보기 힘들어서 못 보겠다는 주변 반응도 있었다.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더라”면서 “지금은 ‘마더’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덕분에 힘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2015년 엄마가 된 이보영은 2018년 ‘마더’를 통해 다시 한 번 ‘엄마’가 됐다. 세상의 수많은 엄마들에게 ‘마더’라는 메시지를 던지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성공했다.

이렇듯 많은 생각을 담아낸 작품이었기에 ‘마더’의 끝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보영은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윤복이랑 둘이서 엄청 울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내일도 촬영장에 나가야 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마더’는 칸으로 향한다. ‘마더’는 최근 제1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공식 경쟁 부문에 선정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모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길 바란다”던 그의 말처럼 ‘마더’의 메시지가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갈 기대해 본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돌아온 여제’ 박인비, LPGA투어 1년 만에 우승

19언더파 269타 기록... 통산 19승

‘골프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통산 19승째를 달성했다.

박인비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와일드파이어 골프클럽(파 72·667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 마리아 알렉스(미국),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이상 15언더파 273타)을 5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약 2억4000만원)다.

박인비는 지난해 3월 ‘HSBC 우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이후 1년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투어 통산 19승째를 올렸다.

지난해 8월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허리 부상을 당해 시즌을 조기 마감했던 그는 올 시즌 두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1위

에 오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14언더파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돌입한 박인비는 1번홀(파4)부터 버디를 낚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후 11번홀(파5)까지 10개를 연속 파행진을 거듭한 박인비는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선두를 위협 받는 듯했으나, 또 한 번의 몰아치기로 승기를 잡았다. 12번홀(파4)을 시작으로 15번홀(파5)까지 4홀 연속 버디를 낚으면서 2위 그룹과의 격차를 4타까지 벌렸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박인비는 마지막 18번홀(파4)도 안정적으로 끝내며 우

승을 확정했다.

역대 최고령 우승에 도전했던 로라 데이비스(55)는 이날 2번홀(파5) 이글을 하는 등 선두를 바짝 추격했지만 박인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인지(24·KB금융그룹)는 버디 6개를 잡아내며 데일리 베스트를 기록,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지난해 준우승만 5차례 했던 전인지는 올 시즌에 앞서 치렀던 두 개 대회에서 20위권 밖에 머물렀으나 ‘톱5’에 들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김민서 기자



티오프하는 박인비.

/AP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3월 20일

음력: 2월 4일

수도권 날씨

3~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36 | 해질 / 18:43

연천 0/8

동두천 1/10

가평 1/7

파주 0/9

서울 3/9

양평 1/9

인천 3/9

수원 3/9

용인 3/9

평택 2/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사진)의 재계약 논의가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 ▲ 한국테니스의 간판 정현(한국체대)이 세계 랭킹 23위에 오르며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 ▲ KBO가 오는 30일 경기도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t wiz와 두산 베어스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경기 시작 시간이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 ▲ KBO가 사회 소외계층의 청소년 야구선수들이 야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야구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한국 동계패럴림픽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의 쾌거를 이룬 ‘노르드 철인’ 신의현(창성건설)이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바이애슬론 메달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 로리 매길로이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1년 6개월 만에 정상에 올랐다.
- ▲ 여자컬링 대표팀이 20일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예선 4차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결승전 상대인 스웨덴과 만난다.